

홍콩 사태의 본질은 글로벌리스트 우익의 총궐기

인터내셔널

홍콩 사태는 2019년 한 해 내내 중국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국가인지를 전세계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 그리고 자유주의 진보를 자처한다는 허핑턴포스트까지도 주류 언론들은 리버럴의 논리를 활용해 홍콩 사태를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로 조망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주류 진보언론이라 볼 수 있는 한겨레나 경향신문까지도 홍콩 시위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태가 숨어 있다. 카오룽에서 시위대가 중국을 옹호하는 논조의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여성 대학생을 무참히 폭행하고, 전철역에 불을 지르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서구 언론들은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친중을 자처하는 세력이 홍콩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다음날 "중공의 잔학한 실태"가 서구 언론들을 통해 전세계에 즉각적으로 날날이 까발려지곤 했다.

물론 폭력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했느냐의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BLM 시위나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집회에서 폭력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서구 언론이 차갑게 돌아섰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단지 흑인 시위대 중 일부가 상점을 약탈했다고 해서 흑인 전체가 검둥이로 조롱받고 당신들은 백인들을 상대로 시위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방당하던 BLM의 현장과, 중공이라는 거악을 상대로는 폭력도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다는 홍콩의 현장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은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홍콩은 역사적으로 늘 중국에 속해 왔다고 주장하던 버스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폭행당하는 홍콩의 현실 속에서도 절대거악인 중국을 옹호한 대가로는 그것조차 당연하다는 것이 서구 언론의 반응이었다.

홍콩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방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의 중심에 박아놓은 썩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으며, 영국이 홍콩을 점령한 것은 150년 남짓에 불과하다. 물론 영유권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서 누구의 땅이 되어야 하는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홍콩이 본래 영국의 영토였는데 중공이 홍콩을 찬탈해 간 것이라는 우익 세력들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베트남에서 홍콩으로 도망쳐 나온 반공 세력들이 유니언잭과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홍콩을 해방시켜 달라고 외치는 찬란한 자유우파의 낙원에서 좌파를 자처한다는 이들이 시위대를 지지해야 할까?

흑자는 주거와 빈곤 문제 등의 계급모순이 홍콩 사태로 표출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시위대 중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급모순에 대한 반발이 이 모든 난장판을 만들어낸 주체에게 해방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동이라는 단어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시위대 중 일부에 대한 단순한 동정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미국의 전미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 CIA가 정기적으로 시위대의 동향을 체크하며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홍콩 시위 그 자체를 옹호할 수 있을까? 만일 좌파성을 포기한 채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좌파라면, 좌파의 본태적 지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반동적 흐름인 홍콩 사태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홍콩 사태는 시위대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우익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총궐기일 따름이다.

홍콩 사태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우리는 이 사태로부터 앞으로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운 채 실제로는 국제자본과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 확장을 도모하는 시도에 관해서는 명백히 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서구의 입장만을 보고 그에 반대되는 입장만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우 또한 범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사태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민주정부에 대한 원론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러한 입장이 미얀마에 개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아웅산 수치 민주정부가 기존에 친미 정권이 아니었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친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데타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국내 권력의 변동만 가져올 뿐, 미국에 있어 핵심적인 이익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세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부르게 입장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